

예술로 삶을 바꾸는 방식 탐구한다

16회 광주비엔날레 9월 5일~11월 15일
릴케의 메시지에서 영감 얻어 주제 구현
각국 파빌리온 ‘역대 최대 라인업’ 기대
30년 역사 담은 ‘AI라키비움’ 구축 추진

예술이 삶을 바꾸는 방식에 대한 탐구.
독일 문학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평가받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국내 독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백석, 윤동주 등이 영향을 받을 만큼 릴케의 시는 서정성, 형식 실험 등에 있어 남다른 위치를 점한다.
특히 ‘주여, 때가 됐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로 시작되는 ‘가을날’이라는 시는 황금빛으로 물드는 계절이 되면 곧잘 애송되는 시다.
올해 열리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릴케가 젊은 시절 던진 메시지에서 받은 영감을 모티브로 주제를 구현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 이사 윤범모)는 14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일정과 잠정적인 주제를 공유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해 9월 싱가포르 출신 호추니엔을 16회 예술 감독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와 맞물려 10월 큐레이터 3인으로 팀을 구성해 전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올해 비엔날레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72일간 진행되며 전시 주제는 오는 3월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윤 대표이사는 “올해 주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예술이 삶을 바꾸는 방식’에 대한 탐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릴케가 젊은 시절 던진 메시지에서 착안, 변화를 견인하는 사유와 다양한 방식을 탐색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또한 “전시는 참여자가 개개인인 ‘모두가 주인공인 전시’에 방점을 두고 진행된다”며 “다양한 층위의 목소리와 실천이 전시를 토대로 구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제는 오는 3월 12일~13일 광주와 서울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다. 3월 26일에는 아트바젤 홍콩 프리뷰 기간에 맞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후 첫 주말인 지난 2024년 9월7일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는 다양한 연령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아 미술 축제를 즐겼다. <광주일보 자료>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해외 홍보도 진행한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눈여겨 볼 지점은 ‘파빌리온 프로젝트’다. 세계 유수의 국가 및 문화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며 역대 최대 규모 라인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위스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몰타, 브라질, 캐나다, 중국, 몽골 등에서 참여를 확정했거나 협약 중에 있다.
참여 작가 라인업도 눈여겨 볼 만하다. 장소의 기억을 구현하는 비르크 고클름을 비롯해 이색적인 물질성을 탐구하는 보스코 소디, 대만의 미디어아티스트 위안광밍은 오늘의 시점에서 미술의 에센스를 가늠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파빌리온 전시를 위한 거점 공간 확보도 주요 과제다. 현재 재단은 우일선 선교사 사택 외에도 회경루, 광주시민회관, 광주극장, 동구 청년인문학당 등 광주의 특성이 투영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백기영 전시1부장은 “타 국가나 문화기관들은 광주가 환기되는 공간에서 파빌리온 전시를 하길 원한다”며 “장소 특정적 공간은 국제

교류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재단은 전시 기간 국가별 오프닝 파티, 아티스트 토크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해 예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비엔날레는 ‘AI라키비움’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30년 역사가 담긴 소장품, 자료, 기록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재단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서비스 포털 구축에 방점을 두고 전시·행사 관련 실무자료, 전자기록물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 및 디지털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매개로 디지털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형식으로 시민과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30년 발자취, 그동안의 성과 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아카이브 전시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차근차근 실행되면 광주비엔날레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플레이더부산, 2월 6~7일 광주예술의전당...어린이 참여 공연

새 책가방을 메는 날을 앞둔 아이들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함께 찾아온다. 낯선 교실, 처음 만나는 친구들, '학교'라는 새로운 세계는 기대만큼이나 두근거림을 안긴다. 그런 아이들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유쾌한 무대가 마련된다.
어린이 참여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이 오는 2월 6~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열린다. 플레이더부산 주최.
작품은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금슬이와 늘 바쁜 아빠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입학식에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빠에게 금슬이는 "아빠도 나처럼 1학년이 되면 좋겠어"라며 서운함을 토로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삼촌 할매가 아빠를 다시 '1학년'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이야기는 뜻밖의 전개를 맞는다. 초등학생이 된 아빠와 딸이 함께 겪는 학교생활은 웃음과 공감을 동시에 전한다.
공연은 친구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방법부터 화장실 이용 등 학교의 기본 규칙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간다. 특히 관객이 무대에 직접 올라 배우들과 게임과 체험을 함께하는



어린이 참여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의 한 장면. <플레이더부산 제공>

참여형 구성으로, 어린이들이 공연 속 주인공이 되는 순간을 선사한다.
공연 관계자는 "학교생활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부담 없이 공감할 수 있는 코믹한 연극"이라며 "예비 초등학생들이 즐겁게 입학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료 4만원, 티켓링크·NOL티켓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나온 시간과 풍경을 사유하다

드영미술관, 2월 19일까지 김도영전

‘행복나무’·‘My Utopia’ 등 19작품

김도영 화가에게 새는 창작활동에 있어 특별한 모티브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건넨 철쭉꽃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철쭉꽃과 연관되는 것은 새들이다. 새들은 자유 자재로 꽃에 앉아 있지만 깃드는 자리나 서로를 향하는 시선 등은 저마다 다르다.
김도영이 ‘삶’ 그리고 시간을 그리다’를 주제로 드영미술관에서 전시(오는 2월 19일까지)를 진행 중이다.
작가는 자연의 형상을 매개로 지나온 삶을 반추한다. 꽃과 나무, 새들은 실재하는 풍경을 넘어 작가의 심상이라는 ‘멘즈’를 통해 새롭게 변환되고 구현된 결과물이다. 모두 19 작품이 출품됐다.
‘행복나무’는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한다. 작품에 투영된 행복의 이미지는 소담하면서도 은은하며, 결코 시간에 침윤되지 않는 본질적인 분위기를 환기한다. 행복나무를 중심으로 펼쳐진 시골의 풍경, 달리는 버스, 웅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집들 그리고 이 모든 풍경

을 떠받치고 있는 ‘삶의 지층’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토대로 다가온다.
‘My Utopia’가 발하는 이상적 세계의 풍경도 작품 ‘행복나무’의 결과 유사하다.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는 어느 것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한데 어우러지는 조화로우며, 현대 사회의 각박함과 복잡함, 계수화 등 특징과는 사뭇 대비되는 세계다.
변기숙 학예실장은 “김 작가의 작품은 작가 내면에서 오랫동안 발아되고 변주돼 온 풍경과 감성이 응결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며 “관람객들은



‘행복나무’

새로 시작하는 새해에 지나온 시간과 풍경을 자신만의 기억을 대입해 사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시 공모

전남문화재단, 19일~2월 20일

전남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문화예술 교육 주제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의 공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2월 6일부터 20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전남도 내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과 단체, 시설 등이다.
이번 공모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진입부터 성

장까지 단계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유톼 문화예술교육',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모두의 문화예술교육', '유아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등 모두 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유톼 문화예술교육' 사업에는 신규 단체 육성 트랙이 새롭게 도입돼, 개인 기획자의 활동 지원을 넘어 문화예술교육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재단은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도 마련했다. 설명회는 오는 30일 무안 남악 복합주민센터 공연장과 2월 4일 순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에서 열리며, 사업별 세부 내용과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경계를 지우는 안개’ 김주연 작가와의 대화

오늘 시립미술관 제2전시실

생성과 소멸의 예술가들에게 영원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 모든 생명체는 생과 사의 순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김주연(사진) 작가는 자연의 순환이라는 대전제 아래 생성과 소멸을 작품에 투영해왔다. 존재에 깃든 상실과 아픔을 매개로 회복의 가능성을 작품에 구현해왔던 것.
김 작가는 현재 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이 2025광주디자인비엔날레기념전으로 진행 중(오는 25일까지)인 '장미 토끼 소금-살아있는 제의'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작가의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작가와의 대화와 마련됐다. 15일 오후 3시 시립미술관



제2전시실.
‘경계를 지우는 안개’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작가와의 대화는 출판작을 비롯해 전반적인 예술 활동을 관객들과 나누는 시간이다. 홍윤리 학예사가 대담자로 참여해 대화를 진행한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 순수조형예술대에서 마이스터술러 학위를 받았다.
‘일상의 성소’전을 비롯해 ‘시대착오적인 산책’전, ‘제9회 광주비엔날레-라운드테이블’전 등 다



김주연 작 'Metamorphosis'

양한 전시 및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한편 윤의 관장은 “그동안 김 작가는 묵직하면서도 철학적인 주제를 개성적인 작품으로 형상화해왔다”며 “이번 작가와의 대화는 질의 응답을 통해 김 작가의 예술 세계를 한층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참여는 구글 폼과 전화접수 통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